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8)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나가는 자신의 '이름'이 '다만 부모님이 붙여준 딱지'에 불과하다고 말씀...

아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너무 많은 자아가 있어, 어느 것을 끌어야 할지 모르겠다"란 뜻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배운 '제자'이면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얼굴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승객'이고, 술집에 가면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였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원수'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에 따라 이렇게 다른 얼굴을 통해 세상과 만나고, 다른 역할들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 아귀와 아저의 얼굴에서 자비와 헌신의 보살의 얼굴까지, 생로병사 회로애락의 그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얼굴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각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

로를 돌아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불도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각자, 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상한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내가 '전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천만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경전 <중부 아함>의 비유처럼, 나는 늙거나 병들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버

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다만 그 얼굴을 '단 하나의 고정된 가면'으로 여기고, 그 역할을 종신 철법통처럼 '단 하나의 고정된 지위'로 간주하는 상견(常見)을 부정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적절한 이해로서의 중도(中道)가 있습니다. <능가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생기고 이어지는 것인 까닭에 '사물'은 스스로

형성력이 사대를 진전시킵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활나에 멸하는 법(法)들의 연기(緣起)로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것들, 조건지어진 것들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내 작은 자아가 장악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것이 세계와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흡사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

이 수없이 찌꺼기 있어/ 거품마다 내가 있고/ 방울마다 내가 있어/ 큰 거품에는 내 모습도 커다랗다/ 방울이 작아지니 내 모습도 줄어들다/ 방울 속에 내 눈동자가 있고/ 내 눈동자 속에 방울이 들어 있어/ 집짓 얼굴을 찡그려보니/ 일제히 눈썹을 찌푸리고/ 어찌나 싫어 웃었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리네/ 성난 체를 해 보았더니/ 다들 팔뚝을 걷어 붙이고/ 잠자는 책을 했더니/ 모두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는 이 다양한 자아의 출몰, 중중무진의 연기를 어떻게 진흙으로 빚을 수 있으며, 어떻게 수를 놓고 붓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인가고 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나에 명멸하고 인연 따라 출몰하는 얼굴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을 '나'라 할 것이며, 어느 쪽에 '자성'을 부여하겠습니까.

연암은 이런 물음 앞에서 장난기를 발동시킵니다. 그의 유희정신, 예술가적 감성은 놀랍습니다.

"방울을 지그시 눌러도 보고/ 머리털로 꼭 찢러도 보네/ 시간이 지나 그릇이 식고 차분해지지/ 향기도 사라지고 모습도 찾아 들어/ 수백 수천의 내가/ 어디로 갔는지 자취가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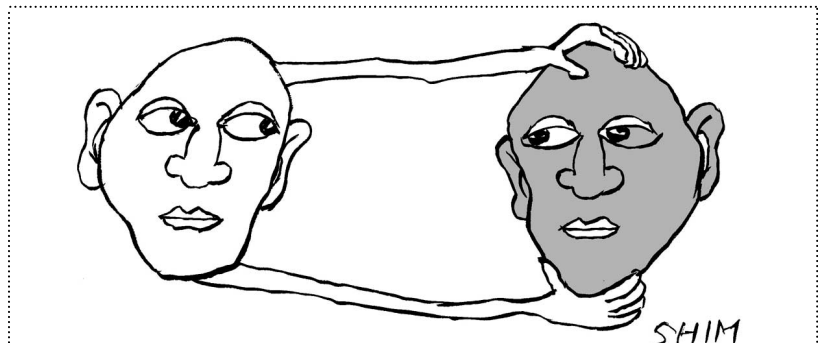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이것이오' 하며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까.

"너는 누구냐"는 불교와 선의 오래된 물음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달마와 혜능뿐만 아니라, 서방의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곤혹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수많은 비누 거품 속에 찍혀있는 내 얼굴들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인과 조건들과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자아는 다른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처럼 명멸하고 출몰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명문, 주공담명

조선 후기의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어느 스님의 탐명에서 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황 탕약을 짜서 걸러보니/ 거품은 솟아나고 방울은 부글부글/ 그 속에 내 얼굴

자아는 수많은 법(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들은 원인과 조건으로서, 또 다른 법들과 인연에 의해, 모여 행(行)을 형성했다가 순간적으로, 즉 활나에 멸하고, 또 다른

주장사 따라...

남전보원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nd illustrations. Topics include: '어느날 육공대부(柳公大夫)라는 사람이', '남전을 찾아왔다', '원래 육공대부는 무척 똑똑한 편이었다', '오만에 차 있구나 하고 느꼈다', '육공은 나도 뭘 좀 알고 있으니', '깨달음의 안개를 받자 왔다는 것이다', '당시 고위관료이며', '유학과 제자백가서도 통달', '불교도 조어가 깊었다', '그렇다면 몇 때인지 몇째 줄에 무가', '있느냐고 묻지 않고', '그대는 하루 12시간을 무엇을 하는가?', '저도 불법을 약간 알고 있죠', '그대 남전은', '약간 안다고 하는 것은 입만 겸손일뿐', '육공은 자신만만하치 않겠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용이라 즉 사명의 세계에 대하지 않고', '순수한 본질의 세계 즉 자신을 꾸미거나', '장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전이 보기엔', '본질의 세계에 가보지도 않고 말뿐임을 느꼈다', '여전히 섬돌밑의 사람 같군요', '즉 겁테기라는 뜻이다', '대부 몇말에 근왕을 지혜있는 신하를 키워주셨다고 했소 허허', '귀머거리가 음악상이 취미', '눈먼사람이 독서가 취미', '10만원 빚진사람은 전기료 아껴쓰고',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머리는 클리면 클릴 수록 복잡할것이오', '그래도 육공은 염려마오', '100억 빚진사람은', '드정거장 택시 타고', '겉모습을 위장하듯', '백성을 자기의 지혜로 다스리겠다고 하니', '남전은', '그곳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구나 ...'

남전 보원 (748-834): 당나라 스님. 757년 대혜 종고 선사에게 득도. 남전산에서 30여년간 하산하지 않고 손수 밭 일구며 수행. '남전잠보' 공안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건당식(建幢式)은 무엇입니까?"

불교계에서 흔히 '아무개 스님, 건당했다'라는 말을 들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당이란 무엇인지요? 궁금합니다. (P. 보현)

답1: 건당식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의식으로,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조사는 법의 신표로 붓다의 의발을 전해 내려 왔고, 중국에 와서 6조 혜능 스님에 이르러 그쳤습니다.

이처럼 의발전수가 끊기 이유는 스승의 의발이 제자들간 다툼이 대상이 되면서입니다. 이때 혜능 스님은 "너의 대에서 그쳐라. 그러면 선종이 천하에 널리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법제도 받습니다. 이 같이 건당식은 불초직전(佛祖直傳)이며 법이 이렇게 상속되 내려갑니다. 경계가 열린 도인은 서로 알지만, 일반 대중은 깨달은 분이 누군지 법을 모르므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리에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누구에게 법이 갔다는 것을 알게 돼 다툼도 의혹도 없게 되죠. 6조 혜능 스님이 5조 홍인 문하에서 삼경에 법을 전해 받고 강을 건너 멀리 남방으로 갈 때, 대중이 뒤늦게 알고 뒤를 쫓아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만공 스님이 입적하자, 제자 보월 스님의 법을 금오 스님이 있는 건당식을 열어 준 일이 있습니다. 서용 스님도 광재 스님에게 건당식을 열어 주었고요. (별님)

답2: 전법의식(傳法儀式)입니다. 스님은 출가할 때 은사(恩師)를 정하는 득도식(得道式)을 행하고, 고된 수행 끝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사 또는 강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행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사를 정해 법사의 법맥을 계승하는 의식, 즉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를 건당식이라고 말합니다. 건당식이 끝나면 법사로부터 법호와 의발(衣鉢)을 전해 받게 되는데, 법호를 줄 때는 법사가 제자의 법호에 대해 해석을 하며, 법통 계승의 내용을 기록한 족패(族牌)를 줍니다. 이 의식 때 제자는 반드시 최초의 설법을 해 여러 스님들 앞에서 스스로의 경지를 보여줘 잘못된 건당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신라말부터 선종과 교종이 모두 행하였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10 11 12 13 14 15 16

상식퍼즐

1. 그리스 신화 중 나르시스가 죽어서 된 꽃 2.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의 끝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위태로움을 뜻함 3. 두 명의 선수가 글로브를 끼고 링 안에서 치고받는 스포츠 4. 학식과 의견을 나타내는 말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5. 유비, 관우, 장비가 복승이나루 밑에서 한 맹세 6. 객지에 있는 향우들끼리 친목을 위하여 가지는 모임.

1.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고사성어 7. 화가를 넘어 이르는 말 8. 저녁에 나오는 신문 9. 등골뼈, 추궁이라고도 함 10. 이야기의 맨 앞부분에 주제가 있는 글쓰기 방식 11. 물체에 평행광선을 비추어서 평면 위에 나타난 그림자로써 그 물체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 12.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조리에 맞게 붙여쓰음을 이르는 한자성어 13. 부정·모순·결함 등의 근원을 파헤쳐 깨끗이 없앴 14. OO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1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